

# “술 사다줘”...코로나 진상 격리자 ‘골머리’

광주 자가 777명, 시설 48명 술 심부름에 격리시설 흡연 규정 벗어난 민원 쏟아내 격무 시달리는 공무원들 곤혹

리자는 777명, 광주소방학교와 5·18 교육관 등 생활시설 격리자는 48명이다. 이들 모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인 2주 격리기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격리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되고 위치 추적 가능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과 하루에 최소 2차례 이상 전화로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주간 격리공간 외에서 다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각종 민원과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지역에서는 자가 격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술을 마시고 싶으니 술 사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없다며 심부름

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계속해서 요구하는가 하면, 3차레나 지급한 사실을 알려주자 “달라면 계속 주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 담당 공무원을 난처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전화해 “언제 퇴근하세요” 등을 묻는 해외입국 격리자도 있었다는 게 서구지역 방역 담당자들 전언이다. 방역 담당공무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임에도 자신들이 협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색내는가 하면, 자가격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한 공무원에게 “범죄자냐! 왜 경찰을 데려와 위화감을 조성하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자가격리자뿐 아니다. 시설격리자들도

호텔에 온 듯한 ‘진상’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장 흔한 민원은 어뎀터를 가져다 달라는 것, 해외에서 귀국해 격리되다 보니 변한 어뎀터를 준비하지 못했으니 가져다 달라는 것으로, 매일 끊이지 않는다. 새벽 시간에 도착한 경우 배고픔을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격리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지시도 어기고 금연공간인 격리시설에서 버젓이 흡연을 일삼는 격리자들도 있다는 게 시설관계자 설명이다. 광주시 서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격리자들의 온전한 자가격리 준수를 위해 격리자에 맞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리한 민원과 요구사항을 받으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내달 둘째주엔 학교 갈 수 있을까

교육부 생활방역 연계 결정 “화 부를 수도” 반대 목소리 지친 일부 학부모들은 찬성

이제 등교개학해도 되는 걸까. 교육부가 초·중·고 등교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5월 둘째주 등교개학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급한 등교개학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고 등교 시기와 방법을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5월 중순께 등교개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 등교개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등교개학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등교개학 후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 만에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했고, 개학 한달 후 확진자가 14배나 늘어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은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마지막 단계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거나 “치료제라도 만들고 상황이 좀 더 진정되면 그때 개학하는

게 맞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온다. ‘등교개학 늦춰주세요’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22일 오전 기준 28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등교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체온계, 마스크,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더라도 무증상 환자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추가 확진자가 한자리 수가 되면 몇 주 간 지켜보고 안전할 때, 학교를 가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3만 먼저 등교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고3 학생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그 외 학생들은 1학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원격수업과 아이들 봄에 지칠대로 지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등교개학을 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학부모는 “학원도 재개되고 학교만 빼면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학교만 굳이 등교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등교개학에 찬성했다. 한편 교육부는 먼저 감염병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등교 개학 가능성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주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어 5월 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위탁 운영 전남어린이급식관리센터 회원 시설 비대면 위생 교육



“화마 휩싸인 조종사를 구출하라”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서 항공기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 구조훈련이 열리고 있다. 1전비 소방중대는 장비 4대와 인원 17명을 투입해 항공기 화재를 진압하고, 조종사를 구출하는 훈련을 펼쳤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 ‘전남교실 ON 닷컴’ 전국 각지서 활용, 인기 플랫폼 부상

전남도청의용학교육원 제작 온라인 개학 대응 학습시스템

전남도의용학교육원은 각급 학교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전남 온라인교육 서비스’에 과제 제시형 원격수업 플랫폼인 ‘전남 교실 ON 닷컴’을 개설했다. ‘전남교실 ON 닷컴’은 단순히 콘텐츠 제공 형태에 머물지 않고 수업의 진행절차에 따라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도움 시스템이다. 로그인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학습내용을 요일과 시간에 따라 제공하도록 돼 있어, 제공된 시간표에 따라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또 각 과목의 학습 진행절차를 ‘생각해보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평가하기’

로 구성해 학습의 흐름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또 중학교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학습 진행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 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시스템개발에 참여한 화산제일초 김도형 교사는 “온라인 개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취업자 등 채용 신체검사 보건소서 못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속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보건소가 진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건수만 2018년 6646건, 2019년 6234건에 이른다. 일반채용 신체검사도 2018년 3685건, 2019년 3677건에 달했다. 보건소 채용신체검사가 사라질 경우 시민들은 민간병원 등을 찾아 보건소에 비해 비싼 비용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전문가가 없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평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구를 비롯한 일선 보건소 등은 이같은 점을 감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보건소 민원업무 개시 시점을 계기로 채용 신체검사 중단사실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동안 광주지역 보건소에서 이뤄지던 예비 취업자와 임용을 앞둔 공무원 신체검사가 사라지게 된다. 22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예비 취업자들의 채용신체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건소 채용 신체검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법은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지정된 국가검진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강화한 게 특징으로, 보건소 등 기존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계속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5개 구 보건소 등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장비·공간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게 많아서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061)322-6183